



조셉 스미스는 1831년 2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도착해서
뉴얼 케이 휘트니 상점에 걸어 들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선지자 조셉입니다. ...
당신의 기도로 인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십시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과 에머가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살았던 1827년 12월부터 1830년 8월까지, 선지자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주기적으로 방문했다. 1830년 9월, 조셉과 에머는 뉴욕 서부에 살고 있던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페이에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해 12월, 선지자는 뉴욕에 있는 교회 회원들의 큰 희생을 필요로 하는 한 계시를 받았다. 그들은 가정과, 농장, 그리고 사업을 남겨두고 떠나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집합해야 했다.(교리와 성약 37편 참조) 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개종자들과 합세하여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며, 주님께에서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2)는 약속을 받았다. 조셉과 에머 스미스는 1831년 1월 말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뉴욕을 떠난 최초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혹독한 한겨울에 썰매 마차로 커틀랜드까지 4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다. 에머는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다.

커틀랜드 주민이었던 뉴얼 케이 휘트니는 그의 손자 올슨 에프 휘트니가 설명한 바와 같이 선지자를 환영한 최초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1831년 2월 초순 경, 네 사람을 태운 썰매 마차가 커틀랜드 거리를 지나 길버트 앤드 휘트니 상점 앞에 머물렀다. … 남자들 가운데 젊고 용감해 보이는 사람이 내리더니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상점 안으로 들어간 뒤 소액 투자 동업자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뉴얼 케이 휘트니씨!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다.

“잘 몰라 뵈겠는데, 누구신지요?” 하고 [가게 주인]은 상대의 내민 손을 자기도 모르게 잡으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은 제 이름을 아시는데, 저는 선생님의 성함을 잘 모르겠네요.’

그 낯선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선지자 조셉입니다. 당신의 기도로 인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휘트니 씨는 놀랐으나 그에 못지않게 기뻐했으며, ... 그는 길 건너 모퉁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일행을 맞이들인 뒤, 아내[엘리자베스 앤]에게 그들을 소개했다. 그녀도 놀라움과 기쁨을 나누었다. 조셉은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앤 케이 휘트니 형제의 집에서 친절하게 환영과 접대를 받았다. 나와 내내는 휘트니 형제의 집에서 여러 주 동안 생활했으며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친절과 환대를 받았다.’ [History of the Church, 1:145~146 참조]¹

울슨 에프 휘트니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 놀라운 분인 조셉 스미스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전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알아보았을까요? 왜 제 할아버지인 뉴얼 케이 휘트니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셉 스미스가 선견자, 뛰어난 선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뉴얼 케이 휘트니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무릎을 꿇고 선지자가 커틀랜드로 오는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사실입니다!”²

5월 말 경까지 약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뉴욕에서 커틀랜드로 이주했다. 일부 사람들은 썰매 마차나 포장마차로 왔지만 대부분은 이리 운하를 오가는 배를 타고 와서 다시 이리 호를 운행하는 증기선이나 범선을 타고 왔다. 커틀랜드로 오는 동안, 그의 생애에 있었던 다른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처럼 조셉 스미스는 임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성도들을 인도했다.

4년 후, 커틀랜드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많은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그의 생애를 특징짓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나타냈다. “11월보다 더 바쁜 달은 없었지만 내 삶은 활동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나는 스스로 이런 규칙을 세웠다.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³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분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중 몇몇 일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것들을 외면하고 그와는 다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마지막에 징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다른 계명들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누가복음 11:42) 저의 사명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원리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홀로 그것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참된 원리를 옹호할 것입니다.”⁴

“한 교회로서 그리고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현명해 지고 그것을 탐구하며, 그런 다음 그것을 기꺼이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11:28; 21:36 참조) 만약 에녹, 아브라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도, 만일 구원을 받게 될 경우, 똑같은 원리를 통해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족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통치하셨듯이, 우리도 한 교회로서 번영하고 보호 받고 지지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확신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지혜는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그분만이 영적 혹은 세상적으로 우리의 보호자요 안전케 하시는 분이시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어떠한 법도 어기거나 인간의 어떠한 가르침도 범한 적이 없으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가버이 여기고 그분의 의식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고 선언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십일조의 법은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준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하게 징계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힘을 느끼고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는 현명해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사무엘상 15:22) 낫다는 것을 기억합니다.”⁵

“지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왕국의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조화를 이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대 신권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된, 뛰어나고 유덕하고 거룩한, 그리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당시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한과 가르침에서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녹의 시대처럼 모든 은사들을 갖고 있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6; 베드로전서 2:9 참조)”⁶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주님의 의로운 가르침에 불순종한 연고로 징죄 받을 것입니다.”⁷

“덕을 갖추고, 순결하며, 고결하고 진실함을 지닌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옳고 그름 간의 차이, 곧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의 차이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가는 길은 의로운 자의 길이 되어 완전한 날에 이르기까지 점점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잠언 4:18 참조)”⁸

윌포드 우드럽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이렇게 보고했다. “조셉 회장은 …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읽고(요한복음 15:1~8 참조),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⁹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순종할 경우 해의 왕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주는 율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어떤 왕국이나 국가에 살든, 또 어떤 명령을 받을 때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을 개선시켜 주도록 그 명령을 특별히 적용시킨 후에야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¹⁰

“하늘의 율법이 인간에게 알려졌으며, 비록 그것은 지상에 있는 악한 자들의 행동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근원으로부터 생겨나는 역경과 고난들로부터 모든 시대의 믿는 자들을 면제시켜 준다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보다도 더 훌륭한 것을 보상에 준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율법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약속이 있으니, 그것은 영생이 필멸의 삶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의 율법보다 높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도, 인간의 율법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의무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면, 하늘의 율법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하늘의 율법이 인간의 율법보다 더 완전하다면, 순종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 역시 인간의 율법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악한 자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영원한 삶, 즉 하나님의 우편에서의 상속을 약속합니다. …

“... 하나님의 의증에는 따로 정해 놓으신 시간 혹은 시기가 있으며, 그때 그분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모든 종들을 해의 왕국의 안식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안식처는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곳이므로 그곳에 들어가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왕국의 율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정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순종할 경우, 그들은 이 안식처를 기업으로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 주님의 율법에 포함된 모든 계명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보상을 준다는 약속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존재, 곧 자신의 말은 일점 일획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에게서 온 약속이기 때문입니다.”¹¹

조셉 스미스는 1843년 4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쳤으며, 그것은 후에 교리와 성약 130편 20~21절에 기록되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¹²

“천국 회의에서 인간을 위해 제정된 모든 축복은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¹³

끝까지 충실한 자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높이 들어올려 주실 것입니다.”¹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이 기대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들이 하는 일에서 참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것입니다. 반면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높이 승영에 이르고, 이 세상 모든 왕국에 대한 승리로 들리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¹⁵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이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22:2~14 참조) 이 비유의 주제가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즉 주님께 충실한 자들은 혼인 잔치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들은 소리가 ‘허다한 무리’ 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6~8)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기록에서도 입증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그분의 율례 안에서 생활하는 자들만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한에 있는 다음 내용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7~8) 이 기록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행한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말처럼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으나 신앙을 가진 후부터 그는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군인처럼 그가 신봉해 온 대업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왔을 때, 자신이 말한 대로 영원한 면류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개심한 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했던 이 사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근면과 인내의 좋은 본보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소당하고, 채찍과 돌에 맞고, 박해자의 손을 피해도 망할 때에도 그는 변함 없이 구주의 교리를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이 세상에서의 명예나 부를 얻기 위해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의 말처럼 하나님에게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충실했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으며,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충실하지 않았다면, 과연 바울과 더불어 그리고 바울과 같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혼인 잔치에 앉기에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을지 잠시 돌이켜 보고, 또 그럴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신앙을 지키지도 않은 사람이 상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장자의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손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 그가 신앙을 지켰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했으며, 그로부터 친히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고대 성도들은 비록 사람들로 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주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이들을 귀감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사도행전 10:34~35 참조) …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되며, 신앙을 지킨 자들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며, 흰 옷을 입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 모든 역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을 통치할 날이 올 것이며, 고대의 약속에 따라 그분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새 포도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이 고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비록 고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높으신 의의 자녀로서, 그들이 받은 것과 같은 부름을 받고, 그들이 받아들인 성약을 받아들이며, 그들처럼 주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다면, 우리도 그들이 그분에게 다가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한 똑같은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것은 베드로, 요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활하고, 그런 약속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신앙이 있었던 다른 사도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약



아그립바 왕 앞에서 간증을 전하는 바울.
 조셉 스미스는 “바울이 끝까지 충실했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 대가로 그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말했다.

속을 얻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약속들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¹⁶

“형제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혹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주님의 포도원에서 더 부지런히 일하도록 자극받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고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탁월함과 정당성을 믿게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견뎌던 노고와 시련, 궁핍과 박해 등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거룩한 경전을 충분히 공부하

신다면, 그들의 인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기꺼이 희생했다는 것과, 여러분이 매일같이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대업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그들의 열의를 나타내는 노력의 훌륭한 모범 역시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성도들의 모범뿐 아니라 주님의 계명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여,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뜻뿐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분에게 가한 극심한 박해와 학대 속에서도 만인 앞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온유함과 완전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께 기록해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처럼 순결해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현명하고, 기록하고, 순결하고, 또 얼마나 완전하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또 그분께서 여러분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적절한 시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은 무관심할 수 없으며, 그분의 모든 신성한 요건들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의가 부족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이 무익한 종들 가운데 속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보상을 잃지 않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발전시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¹⁷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160쪽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서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생활 규칙으로 삼은 말에 집중한다.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이나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여러분이 최근에 받은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러한 지시에 지체없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 161쪽 첫째 단락을 복습한다. 왜 우리는 때때로 “참된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 “홀로 서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참된 원리를 옹호해야 하는 때에 홀로 있지 않게 되는가?(몇 가지 예를 위해 161~163쪽을 참조한다)

다.) 참된 복음의 원리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닐 때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의 원리를 계속해서 행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163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살펴본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가? 왜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가?
- 마태복음 22장 2~4절과 디모데후서 4장 7~8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복습한다.(164~168쪽)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본다.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을 지킨 사람을 떠올려 본다.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선지자 조셉은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격려했다.(168쪽) 거룩해지라는 명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명”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의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출애굽기 20:1~17; 요한복음 7:17; 니파이전서 3:7; 교리와 성약 58:26~29; 아브라함서 3:25

주

1. 올슨 에프 휘트니, “뉴얼 케이 휘트니,” *Contributor*, 1885년 1월, 125쪽; 현대화된 구두법 및 문법.
2. 올슨 에프 휘트니, *Conference Report*, 1912년 4월, 50쪽.
3. *History of the Church*, 2:170;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B-1, 558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4. *History of the Church*, 6:223; 1844년 2월 21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렘과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5. *History of the Church*, 5:65; “The Government of God”에서,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설, 1842년 7월 15일, 857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6. *History of the Church*, 4:570; 1842년 3월 30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7. *History of the Church*, 5:426; 1843년 6월 11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렘과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8. *History of the Church*, 5:31; “Gift of the Holy Ghost”에서,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설, 1842년 6월 15일, 825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9. *History of the Church*, 4:478; 현대화된 대문자 표기법; 1841년 12월 19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10. 조셉 스미스가 아이작 갠던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9년 3월 22일, 미주리 리버티, 리버티 감옥,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0년 2월, 54쪽.
11. *History of the Church*, 2:7~8, 12; "The Elders of the Church in Kirtland, to Their Brethren Abroad"에서 발췌, 1834년 1월 22일, *Evening and Morning Star*에 게재됨, 1834년 2월, 135~136쪽.
12. 교리와 성약 130:20~21; 1843년 4월 2일, 일리노이 주 라무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가르침.
13. 1843년 7월 16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 프랭클린 디 리차즈가 보고함, Franklin Dewey Richards, Scriptural Items, 1841~1844년경, 교회 기록 보관소.
14. *History of the Church*, 1:408; 조셉 스미스가 비엔나 자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3년 9월 4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자크(Jacques) 자매의 성은 또한 가끔 *History of the Church*에 철자가 "Jaques"로 잘못 기재됨.
15. *History of the Church*, 1:299; 조셉 스미스가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2년 11월 2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6. *History of the Church*, 2:19~22; 현대화된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The Elders of the Church in Kirtland, to Their Brethren Abroad"에서, 1834년 1월 22일, *Evening and Morning Star*에 게재됨, 1834년 3월, 144쪽.
17. *History of the Church*, 2:13; 단락 구분 변경; "The Elders of the Church in Kirtland, to Their Brethren Abroad"에서 발췌, 1834년 1월 22일, *Evening and Morning Star*에 게재됨, 1834년 3월, 142쪽.